

스타트업의 수출을 통한 글로벌지향성에 관한 연구

김재호

청운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e-mail:kais@jaehokim@chungwoon.ac.kr

A Study on the Global Orientation through the Export of Startups

Jae-Ho Kim

Dept. of Global Trade & Logistics,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코로나 19 이후 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탄력성을 원하는 기대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간의 패권 경쟁 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등 원가요인의 상승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우리나라의 2023 국정 과제도 수출과 창업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제도는 아직까지 기술중심, 내수 중심의 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은 일정 규모이상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수출전문기업의 영역으로 전문화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창업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글로벌로 세팅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제도와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창업지원기관의 글로벌 역량 확보, 창업지원 자금의 글로벌 확보, 글로벌 창업 육성기관에 대한 시장 개방, 그리고 국내외 유학생을 활용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이것을 하마로 묶을 수 있는 글로벌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을 제안한다. 현재 글로벌창업기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향후 글로벌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사점이 더 많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

1.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움추렸던 경제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팬데믹 이후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통해 물가를 올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 등의 수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GN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 수출기반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막히면 경제가 정체되기 때문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약재 속에서 대기업의 수출 활동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충격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창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에 새싹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 활동은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수명주기에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경제 위기 탈출과 성장을 위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1]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등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 역시 내수 지향적인 기업보다는 글로벌 지향적인 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글로벌창업기업은 혁신창업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의 한계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목표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신속 출시하는 글로벌창업기업들은 빠른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창업지원제도는 기술중심의 벤처에 치중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청년, 시니어, 자영업 등 세그먼트형 창업지원에 치중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제도는 우선 내수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이미 경쟁 강도가 높고, 충분히 다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성은 처음부터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3]

본 연구에서는 수출지향형 스타트업의 현황을 고찰하여 현

실적으로 한국이 육성해야 할 창업인 글로벌 창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창업지원제도의 변화를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성장방법론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창업기업의 수출 현황

2021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1억 달러(139조 4,661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온라인 수출도 6.7억 달러(7,979억 7,000만 원)를 보이며 전년보다 92% 늘었다. 벤처기업 수출은 228억달러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출의 19.5%를, 창업기업 수출은 2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기 수출의 19.1%를 각각 차지했다. [4]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 모두 수출이 증가하며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벤처기업 수출은 228억달러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창업기업 수출은 2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기 수출의 19.1%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수출은 11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9.2%로 전체 중소기업 성장률 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으로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출 도전이 더욱 확대됐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은 전년 대비 49.4%나 증가한 1.1억달러를 기록했다.

구분	수출액	비중	증감	기업 수	비중	증감
중소기업	1,170	100	16.2	92,347	100	△2.7
벤처기업	228	19.5	9.7	19,892	10.7	△6.4
창업기업	223	19.1	16.2	26,073	28.2	8.8
소상공인	111	9.5	19.2	26,822	29.0	△1.5

표 1] Performance by export type (억 달러, %)

2.2 창업기업의 수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연구원(2017)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창업기업은 제품개발 초기부터 내수(12.8%)보다 글로벌 시장(87.2%)을 목표로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글로벌 창업 활동은 활발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 결과 글로벌창업기업 당 평균 수출

액(35.7억원)은 비 글로벌창업기업(22.6억 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5]

글로벌창업기업은 평균 고용이 설립 당시 12명으로 출발한 후 7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글로벌 창업기업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비 글로벌 창업기업	글로벌 창업기업
설립 고용인원	12	12
현 고용인원	17	19
일자리 창출효과	5	7
매출액(억)	71.0	55.4
수출액(억)	22.6	35.7
글로벌 경영성과	2.5	3.2

표 2] Global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2.3 국내외 글로벌창업제도 및 선행연구

글로벌창업기업은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틈새시장의 니즈를 노린 혁신제품 개발 후 글로벌시장에 신속 출시하는 창업활동. 창업과 동시에 빠르게 글로벌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때문에 Born Global Startup으로 지칭된다.

우리나라는 창업 육성을 중요한 국정아젠다로 삼고 있다.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자의 편의를 위해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모든 정보를 모아 놓았다.[6]

이곳에 게시된 글로벌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2개, 인큐베이팅 1곳, 이벤트 1곳, 수출지원 1곳 이다.

전체적인 지원제도를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창업육성에는 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대부분 내수 중심의 초기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수준이어서 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2011년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90여 개의 기업을 선발 지원하고 있다. [7]

그 외에도 수출두드림지원, 글로벌강소기업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수출컨소시엄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유망기업지정, 수출바우처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여성특화제품해외진출one-stop사업이 있다. 이중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인큐베이팅과 두드림 및 전자상거래 사업 등이 가능해 보인다.

‘창업국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경우 스타트업들에게 처음부터 글로벌 R&D를 지원함으로써 본태적으로 글로벌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펀드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투자자가 글로벌 진출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있다. [8]

초기 창업기업의 전략적 지향점 중 하나인 시장지향성의 하위요인인 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 기능간 조정역량은 해외 대상지 적응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해외 타깃시장 적응능력이 높을수록 수출실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는 스타트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한다. 홍대훈 등(2019)은 국내의 창업지원 정책을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의 연구와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3. 결론

중소벤처기업의 2023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 대국’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보다는 수출 중심의 창업을 육성해야 하며, 기술 중심의 벤처 육성과 더불어 소상공인지원 창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창업지원의 수출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크게 중요하다.

글로벌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혁신역량과 글로벌시장 지향성, CEO 역량이 핵심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창업기업은 역량 및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프리젠테이션 &워너피킹 방식의 현행 지원체계 하에서는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창업지원제도의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세팅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마케팅에 지원하는 비용 외에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창업지원기관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야 한다.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지원기관의 역량이 단순히 발굴, 육성에 머물지 말고 글로벌화 역량을 자체적으로 지녀야 한다. 단기간에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면 글로벌 육성 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셋째,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글로벌 자금으로 유치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한 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

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외에 글로벌 창업을 위한 보육센터를 확보해야 하며,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 번째는 이미 국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해외교포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중국과 함께 향후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는 동남아, 인도 등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글로벌화를 추진할 때 원초적으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창업 중심의 창업지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소기업 창업자들은 글로벌경쟁에서 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콘텐츠, 유통, 서비스, 금융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이 내수 지향성 창업과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창업기업의 창업과 지원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되어 글로벌창업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운재. (2005).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18(2), 653-672.
- [2] 이영주 외. (2016).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양성 방안” 산업연구원
- [3] 광동철, 주영혁, & 조봉현. (2016). 창업기업 생존을 영향 요인 고찰: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4), 77-94.
- [4] <https://zdnnet.co.kr/view/?no=20220120173508>
- [5] 이영주 외. (2016).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양성 방안” 산업연구원
- [6] www.k-startup.go.kr
- [7] www.smes.go.kr
- [8] 이권형 외. (2015). 이스라엘의 기술창업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방안 확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9] 이인성, & 김석태. (2021). 창업기업의 시장 지향성이 해외시장 적응능력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7, 417-431.
- [10] 홍대훈, & 전병훈. (2019).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 (Scale-up)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스케일업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6), 11-27.